

동춘당, 눈거울의 여정

Look, 본다는 것의 문화

“노안이 번쩍 뜨인다.” - 추사 김정희, “유리를 끼니 훨씬 밝아졌어라.” - 성호 이익

회덕 송촌에서, 안경을 쓰다, 편지를 쓰다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사진1. 대전 송촌동에 위치). 궁벽한 향리인 회덕(懷德) 송촌(宋村)에 은거하며 학문에 전념한다하여 세상은 그를 산림(山林)으로 불렀다.



[그림 1] 동춘당

1638년, 송준길은 학문에 매진하기 위해 집을 떠난 어린 아들 광식(光栻)에게 편지를 자주 썼다. 그때마다 양식, 반찬, 의복 등속을 주섬주섬 챙겨 보냈는데, 때론 『논어』를 보탰다. 가을이 오면 가을 옷과 등유를 보내 아들의 온기를 살폈다. 어느 해 겨울은 자신이 늘 깔고 앉던 텔 담요를 보냈다.

1660년, 송준길이 편지를 썼다. 30대가 된 아들은 여전히 학문에 열중이었다.

“노안(老眼)이 안경의 힘을 빌어 근근이 친히 개제(改題, 다시 쓰다)하였다. 비록 글씨가 정하고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남의 손을 빌리는 것보다는 낫다.”

노안이 찾아온 송준길. 세월의 풍화로 송준길의 눈은 늙고 퇴화해 안경에 의지했다. 그는 50대에 접어들어서도 봄날바람처럼 온아하고 자애로운 아비이자 벼룩돌처럼 단단하고 곧은 선비였다. 그의 안경은 조선 선비들의 내면을 보는 실마리다.

안경의 명칭, 감각의 풍경도(風景圖)

안경(眼鏡)의 뜻은 ‘눈거울’이다. 조선시대 안경에는 별칭이 있었다. 또한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명칭들이 풍경처럼 펼쳐졌다.

별칭. 안경의 별칭은 ‘애체(靨體)’ 또는 ‘애체경(靨體鏡)’이다. 애체의 한자는 구름이 끼었다는 뜻을 두 번이나 반복한다. 즉 구름, 안개가 자욱하다는 의미다. 조선 사람들은 시력이 저하되면 세상과 사물이 흐릿해지는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다. 이유원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먼 곳이 보이는 애체”가 나오는데, 애체는 돌보기, 천리경(千里鏡)과 만리경(萬里鏡)을 포함하는 망원경을 가리킨다.

안경은 책가도(冊架圖) 병풍(사진2. 그림 우측 안경과 안경집)에서 보듯 조선후기 선비들의 애장품이었다. 안경의 명칭과 특성은 다양했다.



[그림 2] 책가도 병풍

재질. ‘우각테안경’(사진3. 조선시대). 우각(牛角)은 소의 뿔을 말한다. 그러나 우각테안경은 소의 뿔을 가지고 다듬어서 테로 만든 것이다. ‘대모안경’(사진4. 조선시대)은 거북 등껍질인 대모(玳瑁)테로 만든 안경이다. 거북 등껍질이 고급 공예재료인 만큼 시각적 아름다움을 중시했다. 다른 명칭은 ‘귀갑테(龜甲)안경’이다.



[그림 3] 우각안경



[그림 4] 대모안경

형태. ‘학술안경(鶴膝眼鏡)’.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학술경(鶴膝鏡)이 나온다. 학술은 학의 무릎을 뜻한다. 다시 말해, 학의 가늘고 긴 다리, 부드럽게 접히는 무릎의 모양새와 안경다리가 닮았다는 의미다.

선비의 일상(日常), 흐릿해지고 늙어가는 눈

선비들의 일상은 먹빛의 세계에 훌로 서는 것이었다. 그럴수록 자신의 눈을 혹사시켰다.

혼화(昏花), 눈이 흐릿해지다. 이산해는 20대 시절 명종(明宗)의 명을 받아 경복궁 편액을 쓸 정도로 명필이었다. 그는 당대에 거친 듯 흘려 쓰는 초서체로 문명을 날렸다. 1607년, 69세 무렵의 이산해는 한성의 노량에 정자를 짓고, “(...) 즐거운 날 너무 바빠 화리할 때 적고 / 슬퍼할 시간 얼마 없고 슬퍼하지 못할 날 많네 (...) 쇠약하고 병든 이 늙은이 (...) / 올해에는 눈 흐릿한 증세가 더욱 심하구나”라며 시를 지었다.

이산해, 그의 눈은 나날이 흐릿해져갔으나 그의 손은 일평생 다듬어진 촉각으로 붓의 획이며 먹빛을 기억했다. 쇠약해지는 몸과 흐릿해지는 눈앞에서, 그는 생의 덧없음을 읊었다.

노안(老眼), 늙어가는 눈. 1702년, 74세의 박세당은 사위 이렴(李濂)과 서신을 주고받았다. “(...)노안으로 흐릿하게 잘 안 보여 불빛 아래서 글자를 보기가 매우 힘든데 늘 작은 글자로 곤욕을 치르게 되니 몹시 감당하기 어렵네. (...) 진한 먹으로 글씨를 쓰고 글자도 좀 크게 써서 불빛에 비추어들여보기에 편하게 해 준다면 이만저만한 은혜가 아니겠네. (...)” 박세당, 그의 눈은 늙어가고 있었지만 한없는 공손함으로 먹빛의 세계를 다루고 있었다.

꽃, 감각의 발견

퇴계에게도 노안이 찾아왔다. 늘그막에 퇴계 이황은 병으로 3개월을 앓았다. 몸이 낫자 집 주변을 거닐며 꽃을 보고 꽃향기를 맡았다. 퇴계는 이때의 감정을, “(...) 늙은이의 눈에도 오히려 꽃다움은 어여쁘나 / 즐거운 일 젊은이와 함께하기 어려워라 (...) 꽃 대하고 한 번 웃자 꽃이 내게 말하기를 (...)”라고 묘사했다.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과 육신의 늙어감에 대한 한탄이 그에게 교차했다. 그러나 꽃과 교감하는 그의 유기체적인 감각은 생생했다. 이날 그는 자신의 감각을 발견한 것이다.

은혜를 내려준 안경에게

1689년 어느 날, 이현일은 막역한 친구인 이관징으로부터 안경 선물을 받았다. 이현일은 “덕을 베풀어 주신 (...) 찾아가 사례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은 죄가 실로 깊습니다. (...) 이미 소경이 된 눈에 은혜를 내려 주신 것이니 매우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인사를 전했다. 소경이 된 눈에 은혜를 내려 주셨다는 그의 말은 절절했다.

동춘당의 마음, 먹빛, 그리고 안경의 희비애락

1665년 6월, 동춘당이 혼곤한 꿈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이 흘린 눈물로 베개가 젖어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병든 아들 광식의 손을 잡고 백방을 뛰어다녔다. 꿈이었으므로 염연한 사실이었다. 열 달 전 아들이 죽었다. 1664년 10월 15일 아들의 발인 하루 전 날, 동춘당은 아들의 제문(祭文)을 지었다. 늙은 아비가 통곡한다고, 썼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애통하고도 애통하며 오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겨우 썼다. 죽은 아들은 식은 재처럼 훌연히 날아갔고, 아비의 몸은 처절하고 참담하여 가슴조차 안 되었다.

먹빛이 종이 위에 번져나갈 때마다, 글이 슬피 울었다.

1665년 6월, 그는 국왕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적었다.

“신은 자식의 죽음 아래로 두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거의 흑백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으로 시력을 거의 상실한 듯 보였다. 그렇게 사물의 색, 형태, 어둠과 밝음, 깊이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을 것이다. 그는 눈의 어두움이 나아진다면 선왕인 효종(孝宗) 때처럼 국왕과 학문을 논하고 싶다는 마음을 덧붙였다. 그의 몸은 나날이 쇠약해져 갔으나 후학을 위한 강론에 소홀함이 없었다.

1672년 12월 2일, 회덕 송촌은 시나브로 깊은 겨울로 접어들었다. 그날 송준길은 자신의 집인 동춘당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땅에 묻혀 시원(始原)으로 갔다. 그의 나이 67세였다.

동춘당 송준길. 그는 살아가는 내내 아비로서, 선비로서 주어진 생에 충실했다. 그의 안경은 어린 아들에게 편지를 쓰던 아비의 안쓰러움과 자애로움과 기다림을 말해준다. 그의 안경은 잊어가는 시력 속에서 문자를 다루는 학자의 본분, 그 자체였다. 동춘당과 조선 선비들의 안경은 단순히 보는 것(See)이 아닌 느끼고 탐구하고 살펴보는(Look) 감각의 도구였다. 그 안경은 그들의 희비애락(喜悲哀樂)과 먹빛의 세계와 함께 소멸했다. 안경과 선비들의 동행도 끝이 났다. 비로소 눈거울의 여정이 저물었다.

*필자의 집필 원칙은 옛 선인들의 심성이 담긴 글을 직접 인용하여 전개하는 것이다. 다만, 이야기 전개의 가독성을 위해 본문에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본문에 직·간접으로 인용한 자료와 기록을 밝힌다.

● 고전번역서

- 《갈암집(葛庵集)》 《답이삼재(答李三宰)》
- 《동춘당집(同春堂集)》 제5권 소차(疏箋)
 - 제6권 소차(疏箋)
 - 제14권 서(書)
 - 제15권 서(書)
 - 제16권 축문(祝文)
 - 제17권 제문(祭文)
 - 제18권 묘지(墓誌) 상녀광기(殤女擴記)
- 《동춘당집속집(同春堂 繢集)》 제10권 부록 5(附錄五)
 - 제11권 부록 6(附錄六)
- 《서계집(西溪集)》 제20권 간독(簡牘)
- 《아계유고(鵝溪遺稿)》 제4권 노랑록(露梁錄)
- 《약천집(藥泉集)》 약천연보(藥泉年譜) 제1권
-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5권 춘명일사(春明逸史)
- 《송자대전(宋子大全)》 제4권 시(詩) 칠언율시(七言律詩)
-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제2권 시(詩)

● 조선왕조실록

- 인조 14년 병자(1636) 6월 23일(병신)
- 효종 3년 임진(1652) 10월 22일(경신)

● 웹사이트

- 국립민속박물관 <https://www.nfm.go.kr/>
-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
- 서울역사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
- 안동김씨대종회 <http://www.andongkimc.com/>
-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디지털예산문화대전 <https://yesan.grandculture.net/>

■ 도판 정보

*[사진1-사진4]의 저작권 및 출처는 다음과 같다.

● 국립민속박물관

- [사진4] 대모안경. 제1유형,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조선시대, 연도는 불명이다.

● 서울역사박물관

- [사진2] 책가도. 제1유형,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조선시대. 연도는 불명이다. 8쪽 책가도 병풍
으로, 안경과 어피 안경집이 보인다.
- [사진3] 우각안경. 제1유형,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조선시대, 연도는 불명이다. 우각안경 또는
우각테안경이다.

● 필자

- [사진1] 동춘당.